

2026 추석명절 가정예배

추석! 더욱 주님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함께하는신일교회

Shinil Church of Harmony

2026년 추석명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인도: 가족대표

묵상기도 -----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찬송가 559장 ----- 다 같이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사사기 11장 12-15절 ----- 인도자

-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추석 가정예배 말씀나눔

오늘 이 자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마음과 귀를 열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에서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1절) 오늘 말씀에서 입다는 암몬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14절) 암몬자손의 왕이 옛적에 이스라엘이 빼앗아 간 땅을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근거하여 바르게 논박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른 판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신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15-22절)

입다는 암몬자손의 왕에게 과거 출애굽 시기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된 여정을 정확하게 읊으며, 암몬자손의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 점령하였느니라”(21-22절)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기억하는 입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암몬자손의 왕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여러 이야기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바른 방향을 택하도록 성령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며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눔 : 하나님이 함께하신 과거를 나눠봅시다.)

둘째, 하나님만이 심판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28절).

입다는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네가 우리와 싸우겠느냐”(25절), “네가 말한 땅에 우리가 거주한지 300년이 넘었는데, 왜 그 동안은 너희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27절)며 상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 판결하시옵소서”(27절 후반절) 라며 판결의 주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판결의 주체가 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가정에 있는 모든 판결과 판단의 마지막은 반드시 “여호와”께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자 심판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합시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날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 송 ----- 찬송가 435장 ----- 다 같이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덕담나눔 -----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